

브루노 마스 (Bruno Mars)



브루노 마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로 본명은 피터 진 허낸데즈이다.

마스가 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통통한 모습이 레슬링 선수 브루노 사마티노와 닮았다는 이유로 "브루노"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여섯 명의 자식들 중 한 명이었고, 마스의 가족들은 음악 관련 일을 하며 레게,

록,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마스의 어머니는 댄서 뿐만 아니라 가수로 활동하며, 아버지는 마스의 음악적인 능력으로 리틀 리처드 로큰롤 음악을 연주했다. 마스의 삼촌은 엘비스의 흥내를 내는 연예인으로, 3살인 마스가 무대에 쉽게 오르게 해주었다.

마스는 또한 마이클 잭슨, 아이슬리 브라더스, 템테이션스과 같은 노래들을 불렀다. 4살이되자, 마스는 1주일에 다섯 번 가족 밴드 러브 노트스(The Love Notes)의 일원으로 프레슬리의 역할을 맡아 노래를 불렀다. 1990년, 마스는 잡지 미드윅에 "리틀 엘비스"라고 소개되었으며, 1992년에는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에 리틀 엘비스 역할로 출연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을 많이 했던 마스는 그의 음악 기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스는 나중에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지미 헨드릭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2010년, 마스는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아버지 밴드와 함께 하와이 쇼를 많이 보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노래하고, 모두가 연주하고... 나는 단지 그것밖에 몰랐다."라고 언급하였다. 2003년 17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음악 경력을 추구하였다. 마스는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에서 "마스"(Mars)를 덧붙여 이름을 만들었다. 마스는 "나는 활기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웃되어 있다고 많은 여자들이 말하였고, 그래서 나는 화성(Mars)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였다.

브루노는 2004년 모타운 레코드와의 계약을 하였지만 큰 성과없었으며, 곧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필립 로런스(Philip Lawrence)를 만나게 되었다. 마스, 로런스, 애리 러바인(Ari Levine)은 프로듀싱팀 스미징턴스(The Smeezingtons)를 결성하였다. 2006년, 로런스는 애틀랜틱 레코드의 미래 관리자 에런 베이석(Aaron Bay-Schuck)에게 마스를 소개해주었다. 마스는 그에게 2곡을 들려주었고, 베이석은 마스를 바로 계약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결국, 계약하는 데 3년이 걸렸다. 베이석은 마스와 스미징턴스를 애틀랜틱 레코드 아티스트를 위한 작곡 및 프로듀싱 부분으로 계약하였다. 힛쿼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석에 따르면, 마스는 궁극적인 목표는 솔로 아티스트라고 말했으며, 그는 기꺼이 다른 아티스트를 위해 곡을 쓰고 프로듀스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작곡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아티스트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베이석은 마스가 나중에 성공한 것은 이 기간에 의한 "자아 발견"이 상당히 영향이 끼쳤다고 하였다.

브루노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BRIT 어워드를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브루노가 2010년부터 가수로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8백만장의 앨범, 5,800만장이 넘는 싱글의 판매고를 올렸다. 송라이터, 프로듀서, 가수로서 참여한 모든 노래의 싱글 판매량을 따진다면 전세계에서 1억장이 넘는 다.

B.o.B의 노래 "Nothin' on You"와 트래비 매코이의 노래 "Billionaire" 피처링과 작업을 같이하였다. 또한, 브루노는 케샤가 피처링한 플로 라이더의 노래 "Right Round"와 케이난의 노래 "Wavin' Flag"에도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음악가에게 작곡을 해주었으며, 프로덕션 팀인 스미징턴스를 결성하였다. 2010년 데뷔 앨범 Doo-Wops & Hooligans가 발매되었으며, 빌보드 200 3위에 올랐다. 차례로 발매된 싱글 "Just the Way You Are"와 "Grenade"는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하였으며, "The Lazy Song" 또한 크게 히트를 쳤다. "Just the Way You Are"는 1,25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2011년에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아티스트가 되었다. 2집 음반 Unorthodox Jukebox는 2012년에 발매되었으며, 1집과 다른 분위기를 표현했음에도 미국에서 1위를 하였다. 이 음반에서 발매된 싱글 "Locked Out of Heaven"과 "When I Was Your Man"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크게 히트를 쳤다. 또한 2014년, 2집 작업에 함께했던 Mark Ronson의 'Uptown Funk'를 피처링했는데 이 곡이 무려 14주동안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브루노가 참여한 노래에서도 크게 히트친 노래가 많은데, 그 예로는 배드 미츠 이블의 "Lighters", 스눕 독 및 위즈 칼리파의 "Young, Wild & Free" 등이 있다.

2016년 10월 7일, '24K Magic'의 뮤직비디오가 Bruno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사는 'Uptown Funk'를 연상시키며, 게다가 'Uptown Funk'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Bruno의 춤추는 흑인 친구들(Bruno의 밴드)도 해당 뮤직비디오에 그대로 등장한다. 이 곡에서 Bruno는 1집과 2집에서 보여준 사랑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Bruno는 이번 곡에 대해 "여러분은 이 곡을 (3집의) 첫 싱글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단지 이 곡을 파티 초대장이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했다.

3집 24K Magic으로 2017년 아마시상식 올해의 아티스트 포함 7관왕에 오르고, 2018년 그래미 어워드에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곡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있는 상태이다.

빅터 우튼 (Victor Wooten)



현존하는 최고의 일렉트릭 베이스 테크니션. 베이스의 테크닉 적인 요소(특히 슬랩과 태핑)부분에 있어서 가히 길을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 테크니션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1964년에 우튼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놀라운 게 형제들도 유지션의 길을 걷고 있다. 맏형은 조셉 우튼으로 키보드 연주자이자 작곡가이자 보컬이며, 둘째인 로이 우튼은 신디드럼(기타드럼) 연주자이며, 셋째이자 빅터 우튼의 테크닉적 스승인 레지 우튼은 기타 연주자이다.

무명 시절에는 클럽 연주를 전전했으며, 벨라 플렉 & 플렉톤즈(Bela Fleck & Flecktones)라는 제 3세계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의 베이스리스트로서 데뷔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 그의 테크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업다운과 더블 플렉(슬랩 테크닉 이름)을 이용한 복잡하고 리드미컬한 그의 베이스 리프들은 흑인 특유의 그루브와 합쳐져 더욱 빛을 발했다.

전무후무했던, 가히 파격적인 수준의 테크닉들로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후에 그레미 어워즈에서 베이스 상을 무려 다섯 차례 수상했고, 미국의 베이스 전문 잡지 <Bass Player Magazine>에서도 3회 연속 올해의 베이스 연주자로 뽑혔었다.

앨범 활동도 꾸준히 하였으며 2008년에는 스탠리 클락, 마커스 밀러와 함께 S.M.V라는 팀을 결성해 화제가 되었다. 왜 화제가 되었었냐면, 놀랍게도 세계적인 베이스리스트 3명이 모여서 팀을 결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워낙 특색있고 세계적인 베이스리스트들이라보니, 베이스만 세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꼭 차 있다. 베이스 연주자가 아니어도 들어볼 만한 명반이다. (앨범 Thunder, 2008)

Bass Extreme 이나 그가 주최하는 베이스 캠프에서 그가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굳게 믿으며 또 그것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베이스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크닉을 공유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빅터 우튼은 친절하게도 자신의 슬랩 테크닉 강좌 레슨을 약 두 시간 짜리 분량 정도를 찍어서 발매한 적이 있었다.

그 레슨 비디오에는 빅터 우튼 자신이 영향 받았던 아티스트들(스탠리 클락, 루이스 존슨, 래리 그레이엄, 부치 콜린스 등 이 소개 되어 있으며, 그들의 대표곡들을 잠깐잠깐씩 소개하면서 쳐준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들의 곡을 칠때마다 빅터 우튼 본인의, 정말 빅터 우튼스러운 느낌이 물씬 난다. 마치 처음부터 그의 곡이었던 것 처럼. 베이스계의 전설인 자코 파토리우스의 이름도 잠깐 언급된다. 그리고 그의 대표곡이자 최초의 하모닉스 베이스 곡인 Portrait Of Tracy를 연주하며, 자신이 얼마나 자코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또 자신이 테크닉을 연습할때의 대해서 설명해주는데, 그는 자신이 연구한 테크닉과 리프들을 이리저리 섞어서 만든 뒤, 그것을 다시 음악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Palmystery 앨범의 수록곡이자 또 다른 재즈 베이스리스트 리처드 보나가 보컬을 맡고 있는 I Saw God이라는 곡의 가사를 해석해보면, 그는 무신론주의자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듯 하다.

직접 쓴 책도 있다. 제목은 빅터우튼의 음악레슨으로 베이스주자뿐만 아니라 음악하는사람은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내용의 책이다. 책에서도 느낄수 있지만 그의 베이스 캠프 영상이나 레슨 영상들을 보면 음악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어떤생각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를 느낄수 있다.

또 빅터우튼은 음악을 "언어"의 개념으로써 접근하는데,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새로운 관점은 아니지만 빅터우튼식의 해석이 재미있다.

2017년에 Trypnotyx 라는 앨범을 냈고, 현재는 오랜친구이자 동료 유지션 스티브 베일리의 영향으로 버클리에서 꽤 자주나타나는 visiting artists 중 한명이다. 실제로 한달에 한번 꼴로 버클리에 와서 공연 및 클리닉등을 한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강연, 클리닉, 캠프 등을 통해 후학양성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볼 수 있다.